

C. 제 3 그룹의 연구성과

테마 「신도·일본문화의 정보발신과 현황의 연구」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교수를 그룹리더로 이시이 켄지(石井研士)교수, 쿠로사키 히로사키(黒崎浩行) 강사, 놀만 헤이븐즈(Norman Havens)조교수의 4 명이 사업추진담당자로서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의 종합프로젝트 「신도·일본문화의 온라인 정보발신의 종합연구」의 연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이 종합 프로젝트는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교수를 책임자로 하고 동 프로젝트의 멤버가 사업추진 협력자로서 CO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 3 그룹은 국학원대학의 COE 프로젝트 중에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발신과 신도나 일본문화의 현대의 상황을 조사·연구하는 것을 담당했다. 또 제 1 그룹, 제 2 그룹의 연구성과의 웹상에서의 발신을 총괄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연구 및 조사도 실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다음의 5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a.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편 『신도사전(神道事典)』의 개정·영문번역, 편집과 온라인 공개
 - b.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를 중심으로 신도연구자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 c. 현대의 종교에 관한 조사의 실시
 - e. 근대의 신도교단에 관한 기초자료의 정리와 디지털화
 - f. COE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연구성과의 웹상의 발신
- 각각의 성과 개략은 다음과 같다.

a.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편 『신도사전(神道事典)』의 개정·영문번역, 편집과 온라인 공개

1992년에 간행된 『신도사전』의내용을 일부분 수정해서 웹상에서 공개했다. 이것이 Encyclopedia of Shinto(EOS)이다. 각 항목의 내용을 알기 쉽게 화상(画像), 동영상, 음성을 새롭게 작성하고, 텍스트화일로 링크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온라인발신을 하게 되었다. 사업추진담당자, COE 연구원 외, 죠치대학(上智大学) 교수인 나카이 케이트(中井 kate), 동경대학 교수인 세키모리 게이노(関守 gaynor)를 편집작업 멤버로 했다.

38 명의 국내외 번역협력자와 함께 2003 년도까지는 번역이 완료되고, 2004 년도말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화가 개시되었다. 웹상의 공개를 개시하고 있고, 국내외에서 많은 액세스가 있으며, 2006 년말까지 약 20 만 이상의 액세스를 기록하고 있다.

b. 국제심포지움의 개최를 중심으로 신도연구자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

심포지움은 「신도·일본문화연구 국제심포지움」이라는 메인테마를 기준으로, 미니심포지움을 포함해서 합계 6 회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각 심포지움의 개별 테마는 다음과 같다.

1. 제 1 회 「각국에 있어서의 신도연구의 현황과 과제」(2003 년 3 월)

발표자=베른할드 샤이드(Bernhard Scheid), 잔 반 브레먼(Jan van Bremen), 프랑소아 마세(Macé, François), 헬렌 할디카(Helen Hardacre), 이원범(李元範).

코멘테이터=하야시 마코토(林淳).

사회=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2. 제 2 회 「〈신도〉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2003 년 9 월)

발표자=안 웨마이야(Ann Wehmeyer), 마크 마쿠나리(Mark McNally),

존 벤틀리(John Bentley), 프랑소아 마세(Macé, François), 노성환(魯成煥).

코멘테이터= 헬렌 할디카(Helen Hardacre).

사회=나카이 케이트(中井 kate), 나카마키 히로치카(中牧弘允),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3. 미니 · 국제심포지움 「〈신도〉는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2)근현대의 신도를 중심으로」 (2003년 12월)

발표자=장 피에르 베르톤(Jean-Pierre Berthon), 인켄 프로루(Inken Prohl).

코멘테이터=사쿠라이 하루오(櫻井治男) [황학관대학(皇學館大学)교수] ,

에른스트 로코반트(Ernst Lokowandt).

사회=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4. 제 3 회 「신도의 연속과 비연속」 (2004년 9월)

발표자=류드밀라 에루마코바(Liudmila Ermakova), 아루노 브로톤(Arnaud Brotons), 파비오 람베리(Fabio Rambelli), 게리 에바소레(Gary L. Ebersole), 클라우스 안토니(Klaus Antoni).

코멘테이터=엔도 준(遠藤潤), 카세 나오야(加瀬直弥), 후지이 히로아키(藤井弘章), 오타 나카유키(太田直之), 마츠모토 하사시(松本久史), 카와무라 쿤미츠(川村邦光).

사회=나카이 케이트(中井 kate), 놀만 헤이븐즈(Norman Havens),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5. 제 4 회 「온라인시대의 신도연구와 교육」 (2005년 9월)

발표자=사인(色音), 스티븐 코벨(Stephen G. Covell) , 페트라 키엔레(Petra Kienle),

코마츠 카즈히코(小松和彦), 잔 미셸 뷰텔(Jean-Michel Butel), 존 벤틀리(John Bentley).

코멘테이터=스미카 마사요시(住家正芳), 라이언 워드((Ryan Ward), 쿠로사키 히로유키(黒崎浩行), 카세 나오야(加瀬直弥), 히라후지 키쿠코(平藤喜久子), 사나다 하루코(真田治子).

사회=놀만 헤이븐즈(Norman Havens), 사쿠라이 하루오(櫻井治男),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6. 제 5 회 「신도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형성」 (2006년 9월)

발표자=노성환(魯成煥), 사인(色音), 마크 테웬(Mark Teeuwen), 존 브린(John Breen),

존 벤틀리(John Bentley),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사회=아사노 하루지(淺野春二), 놀만 헤이븐즈(Norman Havens), (中井 kate)..

연구포럼

발표자=놀만 헤이븐즈(Norman Havens), 엔도 준(遠藤潤), 히라후지 키쿠코(平藤喜久子), 타케이 준스케(武井順介), 에릭 스킷탄츠(Erik Schicketanz), 카토 사토미(加藤里美), 나오야(加瀬直弥), 마츠모토 (松本久史), 이나바 케이신(稲場圭信), 사나다 하루코(真田治子).

사회=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

이상의 연속적인 국제 심포지움에 의해, 각국에 있어서의 신도연구의 현황이 파악되고, 또 신도라는 개념과 그 기본적 용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신, 신사, 천황, 황후, 국학,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도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 관련용어를 번역할 때에 어느 정도 번역어를 통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의논했다. 그리고 금후 신도연구를 국제적인 협력관계로 실시해 가는 경우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시사했다.

c. 현대종교에 관한 조사의 실시

현대의 신도에 관한 조사는 이시이 켄지(石井研士)교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그 분석은 쿠로사키 히로사키(黒崎浩行)강사가 덧붙였다. 앙케이트 조사는 2 회 실시되어, 그 결과의 개요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1. 제 1 회 앙케이트 「일본인의 종교의식 · 신관(神觀)에 관한 여론조사」 (2003년 10월 실시)

조사는 만 20 세이상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법으로 실시하여, 1417의 유효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집에 카미다나(神棚)·불단(仏壇) 등이 있는 비율, 하즈모데(初詣), 성묘 등 종교적 행사를 실시하는 비율, 신불(神仏)이나 영혼 등을 믿는 비율, 길흉을 점치는 여섯날(六曜), 배개를 북쪽으로 두는 것(北枕), 액년(厄年) 등의 속신(俗信)을 마음에 두는 비율, 초능력을 믿는 비율, 신앙심을 가지는 비율 등 10 항목을 질문하고, 남녀별, 세대별 등에 대해서 크로스집계를 실시했다.

2. 제 2회 앙케이트 「일본인의 종교단체에 대한 관여·인지·평가에 관한 여론조사」(2004년 10월 실시)

제 1회와 같이 20 세이상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1385의 유효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신앙이나 심신(信心)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지고 있다」로 답한 사람은 27.7%이다. 종교행위나 실천 등에 관해서는 사회습속적인 행위로 20~30%가 행하고 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의 수치에 가깝다. 예를 들면 「부적이나 호부 등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사람이 21.3%, 「신사나 절의 가까운 곳을 지날 때에는 참배를 한다」라는 사람이 26.1%였다.

또,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교수는 학생에 대한 최근의 앙케이트 조사를 새로운 시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대일본의 젊은이의 종교의식을 특징짓고, 그 결과를 일본어 및 영어로 공개 간행했다. 즉, 과거 7회 각각 수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세세하게 크로스집계하고, 이시이(石井)가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했다.

d. 근대의 신도교단에 관한 기초자료의 정리와 디지털화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에는 지금까지 수집해 온 교과신도 관계의 자료가 많이 있다. 이것을 정리하고 연구의 성과를 발신해 가는 작업은 이노우에 노부타카(井上順孝)교수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번의 사업에서 특히 분석을 진행한 것은 신리교(神理教) 관계의 사료(史料)·데이터이다. 또 쿠로즈미교(黒住教), 신도슈세이파(神道修成派)교단 자료의 디지털화도 일부 실시했다.

e. COE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연구성과의 웹상 발신

COE 프로그램이 시작된 연도부터 COE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된 사업을 모두 업로드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뉴스레터로 간행했다.

이상의 결과, COE 프로그램에 의한 거점이 형성되어, 그 후의 연구수행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신도연구의 국제적 추진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실현했다. 영어권이 중심이지만, 그 이외에도 프랑스어, 독일어권, 또 중국, 한국과도 연구교류의 태세를 만들었다.
- (2)신도·일본문화에 관한 연구성과를 온라인 정보로 발신해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작성했다.
- (3)현대신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종교학적 시점 및 종교사회학적 시점에서 실시되어, 그것에 의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